

# 전남도, 전 세계에 ‘첨단기술·지속가능한 미래 비전’ 알린다

혁신기업 15곳과 글로벌 공동관 운영 메타버스, 스마트팜 기술 등 선배 전남 대학생 참관단 프로그램 진행

전라남도는 7일(현지 시간)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 CES 2025에 참가해 전남지역 혁신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공동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CES 주제는 ‘몰입하라(DIVE IN)’다.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 지속 가능성 등 첨단 기술이 주목받는 가운데 전남도는 지역 기업들과 함께 첨단 기술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세계에 선보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참여 기업을 지난해 11개사에서 15개사로 늘렸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체험존을 새롭게 구성했다. 체험존은 (주)뉴작과 (주)휴먼아이티솔루션이 운영하며, 신체 착용 기기 없이 메타버스를 체험할 혁신 기술을 적용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주)뉴작은 메타버스와



지난해 열린 'CES 2024'의 전남관.

/전남도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두 분야에서 CES 혁신상을 받았다. 전남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기업들은 다양한 첨단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안그린테크는 스마트팜 제어 시스템과 농업용 유동팬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솔루션을 제안한다. 테라웨이브는 물 순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챔버형 스마트팜을 전시한다. 피루제이는 인공지능 기반 개인 맞춤형 운동 분석 기술로 헬스케어 시장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보여준다. 네오드림스는 재활치료용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의료 기술의 혁신 가능성을 제시한다.

와이그램은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기술로 창의적 디지털 경험을 선사한다. 스마트큐브는 홀로그램 기반 관광 안내 시스템으로 스마트 관광의 비전을 제시한다. 아이오티플러스(주)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하이브리드 인버터를, 비케이에너지는 회전식 수상태양광 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소개한다. 에이비알

은 재제조 양극·음극 소재 기술로 자원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인지솔루션은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 시스템으로 교육 혁신을 선도한다. 이외에도 포비드림의 재난 대비 장비, 터빈크루의 무선 충전 드론, 에이스퀘어의 스마트 농업 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이 전시된다.

또한 전시 기간 '전남 대학생 참관단'으로 구성된 5개 대학 6개 팀 50여 명이 방문해 첨단 기술과 글로벌 산업 동향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관 개관식은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어 글로벌 전남 퍼포먼스와 함께 전시회가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CES 참가를 통해 첨단 농생명 밸리, 재생에너지100(RE100) 산업단지,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등 주요 프로젝트를 홍보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도약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달성군 '통계업무 진흥유공' 우수기관

달성군은 통계조사 부문에서 '2024년 통계업무 진흥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2024년 통계청이 주관한 전국 국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 등 전국 단위 경제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관에 수여되는 상이다. 달성군은 통계조사 부문에서 탁월한 수행 공헌도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달성군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자체 계획 수립 ▲조사요원 채용 및 관리 ▲실사 지도 ▲조사 홍보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달성(대구)=김준환 기자 kih9@

### 남해관광문화재단

#### 지난해 3.7만명 바래길 찾아

남해관광문화재단은 2024년 바래길 전체 탐방객이 3만 7758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고 밝혔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남해 바래길 전용 앱을 통해 남해 바래길 탐방객 규모를 집계하고 있다. 앱이 첫선을 보였던 2021년에는 약 1만 8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남해 바래길 탐방 안내 센터를 방문하는 방문객도 지난해 1만 9071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2만여 명의 방문객이 바래길 탐방 센터를 이용해 바래길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 영양군

#### 동절기 유도 전지훈련 유치

영양군은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영양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양군유도회가 주관하는 동절기 유도 전지훈련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지훈련은 18개팀 230명이 참여하는 1차 훈련(1.6.~1.10.), 13개팀 270명이 참여하는 2차 훈련(1.13.~1.17.), 31개팀 341명이 참여하는 3차 훈련(1.20.~1.24.)으로 구성되었다.

영양군은 작년 각종 전지훈련을 통해 6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고 매년 전지훈련 규모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600억 지원

동상전통시장 청년몰 추가 지원 다동이가정 이자 차액 특별지원 신설 20일부터 신청... 전년비 한달 앞당겨

김해시는 2025년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난해보다 50억원 많은 6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 또는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받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5000만원 이내 2~5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 실행 후 2년간 이자 차액 연 2.5%와 신용 보증 수수료 6개월분을 지원한다.

상반기 융자규모는 보증대출 120억 원을 포함한 300억원이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10인 이상 단체납부 가격 할인 업소일 경우 2년간 이자 차액 연 3%를 지원하고, 관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이자 차액을 1년간 0.5%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상전통시장 청년몰 입점 소상공인은 2년간 연 3% 이자 차액을 지원해 청년몰 활성화를 꾀한다.

시는 또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장려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만 20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관내 다동이가정 소상공인을 위해 2년간 연 3%의 이자 차액 특별 지원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대출 편의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 융자 취급 협약은행을 기존 15개소에서 2개소 추가한다.

신청은 신속한 민생 안정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한달 앞당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번 자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조금이나마 돕길 바란다"며 "민생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

## “청송군서 펼쳐지는 아이스클라이밍 경쟁”

월드컵&아시아선수권대회 개최

청송군은 오는 11일~12일까지 양일간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경기장에서 '2025 UIAA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아시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국제산악연맹(UIAA), 아시아산악연맹, 대한산악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청송군과 경상북도 산악연맹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다. 대회에는 전세계 18개국에서 모인 128명의 아이스클라이밍 선수들이 참가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청송의 전통문화와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축제로 꾸며진다. 오백년 전통의 청송 백자와 꽃돌 전시를 비롯해, 체험 프로그램인 '행운의 13.5초



청송군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경기장에서 '2025 UIAA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아시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를 맞춰라'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참가자와 방문객들은 청송의 전통문화와 스포츠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월드컵대회 5개년(2026~2030) 연장을 위한 협약식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청송군은 아이스클라이밍을 동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하기 위한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청송(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정읍시, 관광객 철도운임 최대 50% 할인

'정읍 반값 기차여행 시대'

이달부터 '정읍 반값 기차여행 시대'가 시작된다. 철도 운임의 최대 50% 할인 혜택으로 관광객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정읍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게 됐다.

시는 8일부터 기차를 이용해 정읍을 찾는 관광객에게 철도 운임의 50% 상당을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읍을 비롯한 10개 지자체와 함께 인구 감소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할인 혜택을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코레일 회원으로 가입한 후 ▲코레일톡 앱 또는 레츠코레일 웹사이트에서 '지역사랑 철도여행' 카테고리를 선택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정읍 왕복 승차권(당일/1박 2일/2박 3일)을 구매하고 ▲정읍의 인증관광지 중 한 곳 이상을 방문해 QR 코드를 인증하면 된다. 이후 구매 운임의 40% 상당 할인 쿠폰을 다음 달에 제공받을 수 있다.

/정읍(전북)=양수영 기자

## 부산시, '착한 결제 캠페인' 본격 추진

소상공인 안정, 지역 활성화 도모

부산시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부문 '부산형 착한 결제 캠페인'을 올해 1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부산형 착한 결제 캠페인은 인근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상생형 소비 캠페인이다. 민간 기업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소비 촉진을 일으켜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캠페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부산 소재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월까지 매주 착한 결제 동참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범업 이벤트로, 오는 4월 6일까지 13주 동안 시 누리집에서 착한 결제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순천시

#### 순천사랑상품권 15% 할인 판매

순천시는 새해를 맞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로 순천사랑상품권 15% 할인판매를 시작했다.

이번 할인은 기존과 달리 지류(종이)형, 모바일형 상품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역대 최초의 할인율이며, 1월 한 달간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으로 발행된다.

시는 1일부터 5일까지 판매액 집계 결과 174억 원의 실적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는 작년 9월 추석맞이 10% 할인 판매 한 달 전체 실적인 15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